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Childbirth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Value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이연숙**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박사수료 김하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정우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Lee, Yon-Suk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

Ph. D Candidate Kim, Hanui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Emeritus Professor Lee, Jeong-Wo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different family values and to examine how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hildbirth differ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value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601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the cities of Seoul, Incheon, and the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istributed through an online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and cluster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이연숙(yonsuk@korea.ac.kr)

*** 교신저자: 김하늬(hanui613@gmail.com)

analysis , One-Way ANOVA and X^2 test a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valu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marriage, children, and familism were used as parameters to categorize the different types of family values on the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cluster analysis showed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family value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amily-centered values", "individual-centered values", and "familism · children-centered value".
2. The family valu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differed according to each student's gender, age, religion, socioeconomic status, gender-role at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his or her father and or mother.
3. On average, the number of children that the students would like to have in the future is higher than the number of children that they actually plan to have.
4. The students' perceptions of family planning and low birthrate circumstance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family values. The university students categorized as having "family-centered values" planned to have the highest number of children in the future and thought that the low birthrate was a very serious issue, whereas the students with "individual-centered values" planned to have the lowest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future.
5. To conclude the study,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low birthrate and for facilitate further research regarding this issue.

Key Words : the types of family values, the value of marriage, the value of children, the vale of familism, childbirth planning, university students

I.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1960년대 초부터 도입된 정부주도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 급증하던 출산율이 1970년 4.07명, 1980년 2.8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에는 1.59명으로 이미 9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계획사업은 인구를 신속히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나 가족 안에서 자녀가 지니는 의미나 질적 개념의 측면은 간과 해왔다고 볼 수 있다(손승영, 2004).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4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명의 절반 정도인 1.3명으로, 203개국 중 홍콩(1.1명), 마카오(1.1명) 다음으로 최저 순위에 머물렀다. 한편, 조사국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 68세, 여성 72세임에 반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로 각각 15위, 3위를 나타내고 있다(UNFPA, 2014). 즉,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하위 수준임에 반해 평균 수명은 상위 수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인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일컫는데 2015년 고령자통계(통계청,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13.1%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의 추이로 본다면 약 10년 후인 2026년에는 20.8%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처럼 낮은 합계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청장년층, 더 나아가 유소년층의 노인인구 부담부담이 어느 나라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출산율 저하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김정례, 2005).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의 IMF와 같은 경제위기와 개인과 가족의 가치관 변화로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의 자녀만 출산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영향분석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2002년 이후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다(김승권, 2001). 하지만 초기의 정책은 복지의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이거나 혜택이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에만 편중되어 있어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조복희·김양은, 2010). 그러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 투자하고 있다. 저출산의 사회적 심각성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의미하며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재정수지를 악화시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및 출산의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과 더불어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5)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한 저출산 대책 예산은 약 80조원으로 과거보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의 경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임신·출산의료비 보장성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확대·제공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 못했거나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뉴시스, 2015; 새누리당, 2016; 연합뉴스, 2016; 조선일보, 2015)을 받고 있다. 저출산은 특정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정책, 사회구조, 노동시장의 구조 등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개인과 가족이 겪는 경험, 문화를 통한 가치관의 연속과 변화에 의한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미 국가차원의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관련부처,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좀 더 미시적 차원의 접근인 개인적인 측면, 즉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을 통한 자녀출산의 인식이나 계획 등에 관한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 일부 다루고 있거나 각 연구자들의 학위논문 또는 전문 학술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가치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끄는 신념인데(Lewis, 1991) 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각 다른 문화 및 가족은 가치에 있어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Chia와 6인, 1994).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가족가치관이란 개인이 살아가며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습득된 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양식으로 가족에 대해 지니는 생각과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대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 따른 변화와 차이가 반영되며 학자

마다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데 옥선화(1989)는 배우자 선택,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김일명(1988)은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 친족의식, Chia와 6인(1994)은 가족결속력, 가부장주의, 가족전통규범의식, 성평등성, 시간유예성(temporal farsightedness), 독립성, 직업선택의 자율성, 김경신(1998a)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김혜환(2008)은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김자옥(2009)은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성역할의식, 자녀가치관, 자녀양육의식으로 가족가치관이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공통된 가족가치관 하위 요소는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가족주의와 관련된 가족관계 가치관,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가부장권, 친족의식, 가족결속력 등은 가족주의관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해서 볼 수 있다.

가족가치관과 관련한 선행연구(김혜정, 2010)에서 미혼 남녀의 자녀출산 인식은 실제 희망하는 자녀수와 결혼관 등에서,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한 인식은 결혼관, 자녀관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정우외 2인(2012)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장애 희망하는 자녀수와 실제 갖고자 하는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은 자녀출산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관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조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의적 성격을 지닌 규범 원리이기 때문이다(임정빈외 4인, 2002). 특히 대학생부터는 청년발달단계 상 성인기에 진입하게 되며 이 전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에서 다른 발달과업과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생활하게 되며 청소년기 때와는 달리 모든 일에 주체적으로 임해야하며 이는 곧 본격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성인으로서 사회와 가정의 새 일원으로 역할 수행

을 하기위한 준비과정인 것이다(박수현, 2003). 즉 정서적 독립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의 실천과 직업을 준비하고 결혼과 가족생활을 준비하는 발달과업을 수행하게 되는데(김진희, 2010) 대학생의 경우 출생가족에서 형성된 가족의 개념, 가족의 건강성, 가족가치관이 본인이 추후 형성하게 될 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올바른 가족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 것은 미래의 가족의 건강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박수현, 2010). 또한 대학생들은 다양한 이성교제를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실제적인 건강한 가족구성과 그로 인한 출산계획도 수립 할 것이라고 유추 해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결정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으며 실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대학생 집단에서 출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거나 원하는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2014). 또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즉 결혼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대학생들의 출산의지가 높다고 나타난 이세영(2014)의 연구와 대학생들의 출산과 관련된 요소 중 가족 가치관의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난 신경수(2013)의 연구, 대학생의 자녀 및 가족관이 보수적일수록 자녀출산 의도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홍성에·윤혜려(2012)의 연구,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이 희망 자녀수와 계획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정우외 2인(2012)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 대상으로 가족가치관과 자녀출산 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현 저출산 시대에서의 젊은 세대들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형성되기 보다는 유아기, 아동기부터 개인이 경험한 모든 것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때 결혼이나 자녀출산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나 출산 전 올바른 가족가치관을 정립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아 대학생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정우외 2인(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을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가족주의가치관으로 분리해서 분석하고 있어 이들 가치관이 서로 통합되어 유형화된 가치관이 남녀 대학생의 자녀출산 의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족가치관을 유형화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남녀 대학생들의 가족가치관이 어떻게 유형화되며 각 유형이 가지는 특성과 가족가치관의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 계획, 저출산 심각성에 관한 인식 및 저출산 해결주체에 관한 의견 그리고 저출산이 개인, 가족,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대상을 한 집단으로 묶어 분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대상을 가족가치관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접근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가치관 개념 및 하위요소

가족가치관이란 결혼 및 이혼, 출산 및 양육, 가족주의 등에 관한 가치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우외 2인, 2012).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이라는 용어를 가족가치, 가족이념, 가족

의식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결혼, 동거, 이혼,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백주희, 2009).

가족가치관은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므로 다시 여러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자마다 가족가치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가족의 관계, 응집 등 가족주의에 관한 내용을 가족가치관 하위요소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가의식(가부장권 및 친족의식), 친자관계(가족우선성, 가족결속력, 남아선호사상), 조상숭배의식, 효도관(부모공경, 효 및 부양의식), 가통의 계승과 발전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김혜환(2008), 김은선(2014)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 하위요소로 가족관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주로 가족의 형태, 입양, 가통의 계승과 관련된 내용으로 용어만 다를 뿐 가족주의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몇몇의 선행연구를 제외하고는 결혼에 관한 내용이 가족가치관 하위요소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데 이는 결혼 및 동거, 이혼에 대한 의식, 부부관, 부부관계, 부부역할 및 분담 등이며 결혼관이라는 용어로 통합시켜 볼 수 있다. 가족가치관 하위요소 중 자녀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는데 이는 자녀가치관, 자녀양육의식,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자녀관 등으로 이를 통합하여 자녀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성역할과 관련된 내용(성역할관, 성역할 태도, 성의식, 성평등성)이 가족가치관의 또 다른 하위요소로 언급되고 있으며 홍승직(1971)과 Chia외 6인(1994)의 경우 다른 선행연구에 비해 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가족가치관 하위요소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공통적으로 결혼, 자녀, 가족주의, 성역할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가족가치관 하위요소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성역할 태도의 경우는 가족가치관 하위 요소 중 하나인 ‘가족주의’의 가부장권과 관련된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있고, 백주희

〈표 1〉 가족가치관 하위요소

학자(연도)	가족가치관 하위요소
홍승직(1971)	가족가치관, 경제가치관, 정치가치관, 사회가치관, 종교가치관
이동원(1987)	가(家)의식, 친자관계, 부부관계, 부부역할분담
김일명(1988)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 및 친족의식
옥선화(1989)	배우자 선택,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가족우선성, 부모공경 등)
박혜인(1990)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Chia외 6인(1994)	가족결속력, 가부장주의, 가족전통규범의식, 성평등성, 시간유예성, 독립성, 직업선택의 자율성
고정자·강숙경(1996)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
김경신(1998a), (1998b)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도관(효 및 부양의식), 가족주의관
옥선화외 2인(2000)	가족주의, 자녀관, 남아선호 사상
하은아(2002)	부계혈연 중심의 배타성, 위계성(권위성)과 가족위주의 생활태도, 가통의 계승과 발전
김홍규·주연희(2003)	결혼관, 성역할관, 남아선호사상,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김태현·임선영(2004)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이혼에 대한 태도
김혜영(2005)	결혼관, 성의식, 성역할 태도, 부모부양의식
은기수·이윤석(2005)	결혼, 동거, 이혼, 성역할 태도 * 2002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03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사용
남주희(2007)	결혼에 대한 태도, 동거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김혜환(2008)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김자옥(2009)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성역할의식, 자녀가치관, 자녀양육의식
백주희(2009)	결혼, 한부모 가정, 동거, 이혼에 관한 태도 * 2002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03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사용
이지혜(2010)	가족에 관한 견해, 부부역할
진미정·정혜은(2010)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이정우외 2인(2012)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
김은선(2014)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 참고자료: 이정우외 2인(2012) 수정 및 보완

(2009)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는 가족가치관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가족가치관에서 성역할 태도를 분리시켜 분석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들(Chia외 6인, 1994; 김홍규·주연희, 2003; 박현주, 2006; 이정우외 2인, 2012)에서는 성역할 태도를 가족가치관의 구성요소인 결혼관이나 자녀관이나 가족주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

에서도 성역할 태도를 가족가치관 하위요소로 구성하기보다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 하위요소를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으로 구성하였다.

1) 결혼관의 개념 및 관련변인

결혼관이란 결혼에 대한 가치나 견해로 주로

결혼, 동거, 배우자 선택, 이혼 및 재혼 등과 관련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결혼관의 하위 요소는 학자마다 상이한데 다수의 선행연구(김건영, 2009; 김경신, 1998a; 김은선, 2014; 김혜정, 2010; 김홍규·주연희, 2003; 양명숙, 1996; 이정우외 2인, 2012; 홍표자, 2009)에서는 결혼의 필요성 또는 의미, 배우자 선택 양식, 배우자에 대한 태도, 사랑 및 성의식,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 등에 관한 문항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김경신(1998a)은 결혼의례, 김은선(2014)은 독신에 대한 태도, 김혜정(2010)은 동거,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는 여성취업, 가사노동에 관한 항목을 결혼관의 하위요소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결혼관에는 성별, 연령, 종교, 전공, 출생순위,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모-자녀관계, 성역할 태도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신(1998a)의 연구에서는 노인에서 청소년으로 갈수록 근대적인 결혼관을 보였으며 진미정·정혜은(2010)의 연구에서는 미혼남성의 결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2005년에 비해 2009년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필요성 및 동거에 대한 인식이 2005년보다 2009년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선행연구(고정자·강숙경, 1996; 김일명, 1988)에서는 종교가 불교인 대학생이,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관이 좀 더 전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김홍규·주연희(2003)의 연구에서는 2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더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공계 학생들이 예체능계 학생들에 비해 결혼관에 대해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으며(김건영, 2009)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결혼관에는 차이를 보여 맏아·막내-중간 출생순위 순으로 결혼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훈희, 2011). 홍표자(2009)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제생활수준과 결혼가치관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경제생활수

준을 낮게 인지할수록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였다. 부모-자녀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가족관계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가족관계와 결혼관 사이에는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김태현, 2007) 가족관계가 친밀하고 책임 있는 관계일수록 결혼에 대해 더 전통적인 성향을 보였다(김건영, 2009).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외 2인, 2012). 몇몇의 선행연구들(Chia외 6인, 1994; 김홍규·주연희, 2003; 박현주, 2006; 이정우외 2인, 2012)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결혼관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에 대한 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혼관은 나라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Chia외 6인(1994)의 연구에서는 자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독립성의 문항에서 미국인이 중국인이나 멕시코인과는 다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순으로 결혼에 대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Jacqueline, 2006). 백주희(2009) 연구에서는 미국, 스웨덴, 일본의 결혼관에 비해 한국의 결혼관이 더 전통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가족가치관을 비교한 연구(류진아, 2014)에서는 한국인이 말레이시아인에 비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더 지지하였고 배우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상인 경우를 더 선호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의 결혼관의 하위요소는 결혼의 필요성 및 의미, 배우자 선택 양식 및 배우자에 대한 태도, 사랑 및 성의식,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 결혼의례, 동거 의식 등 요소의 구성이 선행연구마다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관을 분석한 이정우외 2인(2012)의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결혼이 갖는 의미, 배우자에

대한 태도 등을 결혼관의 하위요소로 선정하였다.

2) 자녀관의 개념 및 관련변인

자녀관이란 자녀에 대해 갖는 가치로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기를 기대하는 사회·경제·심리적 만족과 부담을 의미한다(이훈희, 2011). 자녀관은 ‘자녀가치’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Hoffman(1973)은 자녀에 대한 가치(VOC: Value of Child)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로 설명하고 있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자녀가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부모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물질적 이익과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투입된 비용을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사회에서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익과 불이익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위, 가계 계승 등이 포함된다. 심리적 가치는 자녀를 출산하여 얻게 되는 행복과 즐거움, 반대로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자녀에 대한 가치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는데 과거 농경사회에서 자녀는 농가 계승, 노동력 제공, 부모님 부양 등의 역할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컸다. 반면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양육자의 부재, 양육비 부담, 부부 중심의 생활이 중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가 과거에 비해 낮아져 자녀를 필수적인 존재가 아닌 선택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커졌다.

김경신(1998a)은 자녀관을 자녀의 필요성, 자녀 양육방식, 자녀양육관, 남아선호사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청소년, 중년, 노년 순으로 근대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과 가족화목의 정도도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대학생에 비해 여자 대학생이, 자신의 가족이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긍정적인 자녀관을 보였다(최현경·이성희, 2014). 반면, 진미정·정혜은(2010)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녀의 필요성이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김은선(2014)

의 연구에서도 남자 고등학생의 자녀관이 여자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았는데 그 이유로 남학생은 임신의 불편함이나 출산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형제자매 변인에 따라서는 자녀관에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생 남성이, 형제자매가 2명인 경우, 관계가 좋을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이훈희, 2011).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경험이 없는 경우에 자녀가 갖는 개인적인 가치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김혜환, 2008) 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나 중요도는 더 높아지는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이정우외 2인, 2012).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를 믿는 기혼여성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이지혜, 2010). 이는 홍표자(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경제생활수준을 낮게 인지할수록 더 전통적인 자녀관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몇몇 선행연구(박현주, 2006; 이정우외 2인, 2012)에서 성역할 태도와 자녀관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 역시 근대적인 경향을 보였다.

미국의 가족에 대한 가치, 태도를 조사한 연구(Arland & Linda, 2011)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것에 대한 가치는 감소함과 더불어 결혼의 주된 목적이 자녀가 아니라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한편, 나라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심리적 가치는 차이를 보이는데 벨기에, 일본, 호주, 미국은 자녀에 대한 사회·심리적 가치가 70%가 넘는 반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80%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Nauk, 2000). Trommsdorff외 2인(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경우 자녀를 갖는데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이 자녀를 출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자녀를 포기하는 이유로는 개인적, 재정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남아프리카의 경우 세대에 따라 가족 수에

대한 선호도가 달랐으며 이는 출산을 위한 자녀에 대한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세대 간의 관계 즉 조모가 그들의 성인자녀의 부모됨 즉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성별, 형제자매 여부 및 관계, 가족 수, 이혼 또는 별거 경험여부, 종교, 경제생활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모-자녀 관계, 자녀에 대한 심리적 만족, 성역할 태도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참고하여 타당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Hoffman(1973)의 자녀에 대한 가치 모형에 기반하여 자녀관을 정의한 이정우 외 2인(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녀관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자녀관에 포함시켰다.

3) 가족주의관의 개념과 관련 변인

가족주의란 가족 내 모든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지속 및 기능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 구성원의 집단적 노력을 말한다(신수진, 1998).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발달한 나라로 가족주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계혈연의 가족, 가족우선성, 가통의 계승과 발전, 가족 간의 유대성, 효의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족주의관은 가족주의, 가족관, 가족주의관, 가족주의 가치관 등 학자마다 용어사용을 달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가족주의가 가족 및 사회 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었으나 산업사회에 들어서며 가족의 규모 및 기능이 축소되고 가족의 의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가족주의 가치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부계혈연의 가족, 가족우선성, 가통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가치는 존속되고 있으나 '가문'위주의 가치보다는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소규모의 '가족'에 대한 '가족주의'로 가족주의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신수진, 1998). 세대에 따라 가족주의 의식의 경험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제사를 모시는 비율이 높았으며 세대가 낮을수록 큰집에 모여서 명절을 지내는 비율은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가족의례 경험의 세대 간 차이는 각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옥선화·진미정, 2011). 김경신(1998b)의 연구에서는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아버지가 가장 높은 가족주의적인 가치를, 반대로 자녀는 가장 낮은 가족주의 가치를 보였는데, 이는 아버지의 경우 종교, 어머니의 경우 교육수준, 자녀의 경우 성별, 연령,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하은아, 2002)에서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전통적인 가족주의관을 나타냈으며 김진희(2010)의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가족 유대성을 포함시킨 가족주의 가치관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더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부양 및 효의식, 친족의식, 가부장의식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김홍규·주연희, 2003; 양옥경, 2002) 성별이 가족주의관에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 집단에게는 아직까지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역시 가족주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정우 외 2인, 2012)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더 전통적인 가족주의관을 지니며 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내 역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본인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전통적인 가족주의관을 지녔다. 한편, 김혜환(2008)의 연구에서는 가족주의관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족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로 친자관계 친족중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족을 혼인, 혈연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개념보다는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집단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가족주의관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및 미혼 남녀의 경우 입양 가족이나 재혼 가족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비혼모 가족에 대해 다른 가족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이는 입양 가족이나 재혼 가족의 경우 비혼모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비록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아니지만 가족관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가족중심성, 가계계승 및 발전의 내용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가족주의관 혹은 가족관에는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관,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가족 유대성, 친족의식, 가부장적의식,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종교, 성장지역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모-자녀와의 관계, 성역할 태도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주의관의 구성요소에 효의식, 가족우선성, 가계계승 및 발전에 대한 가치를 포함시켰는데, 효의식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족우선성은 가족 간의 화목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가족중심성을, 가계계승 및 발전은 남아선호, 자녀출산, 입양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

2. 자녀출산 의식과 가족가치관

출산이 갖는 의미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

에게 심리적 기쁨이나 만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김시업, 1999). 그러나 개인이 성인 단계에 접어들면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생득적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됨 역할을 하면서 실현하게 된다(Erikson, 1950).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기도 하며 부모의 투자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현대 가족의 가장 큰 변화는 임신 및 출산을 개인과 가족의 가치 및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녀를 적게 낳거나 낳는 것을 미루거나 또는 아예 계획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합계 출산율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의 행위는 어느 한 순간에 일어 난다기 보다는 출산하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출산의 의도가 먼저 생성되어야 하며(박현주, 2006)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출산은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 거주지역, 결혼상태, 개인의 선호 등이 있을 수 있으며(Fernández & Fogli, 2005)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즉, 양육비 및 사교육비의 증가, 보육시설의 부재, 고용 불안정, 소득 및 주거 불안정, 일·가정의 불균형 등을 꼽을 수 있다. 몇몇 선행연구(박현주, 2006; Beets, 1997; Jutta, 2010, 2011; William, 2011)에서는 여성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이는 자녀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생활의 경제적 불안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며 더욱이 기혼여성에게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와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한 계획 자녀수나 출산 자녀수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만을 조사한 연구만을 기술하기에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비슷한 대상 또는 자녀출산 인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몇몇의 선행연구(권영인, 2013; 권용은·김의철, 2004; 김혜정, 2010; 이삼식외 5인, 2009; 이정우외 2인, 2012; 홍표자, 2009)에서는 자녀출산 인식의 한 요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와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있는 자녀수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이들 간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시대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자녀수는 2-3명으로 응답한 반면, 실제 있는 자녀수나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는 1-2명 또는 아예 계획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황지영, 2007)에서는 이상 자녀수가 2.18명, 계획 자녀수가 2.01명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수가 더 많았다. 또한 세대 간 자녀가치에도 차이를 보여 할머니 세대의 경우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높게 생각하였으며 자녀의 부정적 가치 중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청소년, 부모, 할머니 세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할머니 세대의 경우가 양육 문제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권용은·김의철, 2004). 더불어 기혼 남녀의 가족계획정책, 맞벌이의 자녀양육 부담감, 부양기대감이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조복희·김양은, 2010) 자녀 양육 부담의 정도를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미혼남녀의 경우 학력, 결혼의사, 결혼의 중요성 인식정도, 자녀에 대한 생각 등의 변인에 따라 자녀출산 의사, 실제 희망하는 자녀수에 차이가 있었으며(김혜정, 2010) 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뿐만 아닌 결혼 및 자녀에 관한 가치에 따라서도 이러한 행동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출산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미향(2011)의 연구에서 자녀양육에 드는 사교육비의 부담, 집값, 생활비 부담 및 취업여성의 영유아 양육 고충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출산에 대해 비교적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저출산 해결 주체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경우 정부의 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꼽았는데(김보경·김한곤, 2005) 즉 육아 및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자녀출산 및 보육의 세금감면혜택을 해준다면 출산 또는 자녀수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대학생들을 조사한 연구에서(황지영, 2007)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회생활을 꼽았는데 이는 사회생활의 유무에 따라 자녀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부가 모두 사회생활을 할 경우 자녀출산이나 양육에 관한 부담이 가중되어 출산을 포기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원인으로서는 자녀 양육비 부담, 취업 및 직업의 불안전성을 꼽아 반대로 해석하면 출산을 적게 할수록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취업 및 직업의 불안전성이 해결되면 출산을 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의 약화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의식의 변화와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가지려는 의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가치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최현경·이성희, 2014). 반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을 기피시켰다는 견해도 있다(이삼식, 2006). 이렇듯 가치관의 변화는 자녀출산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에 관한 논의를 막론하고 가치관과 자녀출산 간 긴밀한 상

관관계가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 상황적인 조건 등의 변화는 출산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핵가족 중심 의식이 강할수록 출산 자녀수는 증가하였으며 결혼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기대 자녀수 또는 실제 계획하고 있는 자녀는 높았다(이미란, 2010; 이정우외 2인, 2012). 청소년의 경우 결혼관과 자녀관 간 기대자녀수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가족관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은선, 2014) 이는 젊은 세대에서의 가족에 대한 의식, 가족의 의미, 가족의 구조 및 형태 등의 개념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생 또는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의향이 없을수록 희망자녀수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보경·김한곤, 2005; 김혜정, 2010) 이는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이 혼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은기수(2004)의 연구에서는 절반 이상의 미혼 남녀가 부부의 애정만으로도 결혼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혼에 대한 가치관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고 태도를 보이며 자녀로 인한 인생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필요성이나 자녀관이 높아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추후 출산에도 영향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지혜, 2010). 반면 박현주(2006)의 연구에서는 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는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결혼기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출산 연령의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고려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몇몇 선행연구(강유진, 2007; 김태현, 2005; 박현주, 2006, 이정우외 2인, 2012; 조아라, 2005)에서는 자녀관이 자녀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근대적인 자녀관을 가질수록 자녀출산 의도는 낮아

져 자녀에 대한 현대적인 경향이 강할수록 자녀출산을 기피한다고 지적하였다.

가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출산의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수가 많았으며 이는 조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으로 인한 출산의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미란, 2010). 청소년의 경우 가족주의관 중 전통적인 효의식을 가진 경우 기대 자녀수가 높았으며(홍표자, 2009) 미혼 남성이 가정의 주된 책임자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더 많은 출생자녀수를 두고 있는 반면 기대자녀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2006). 기혼여성들의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첫째가 아들인지 여부와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가 강할수록 둘째자녀 출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이미란, 2010) 아직까지 부계혈연 중심의 가족주의 생활, 남아선호 사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 같은 가족가치관의 구성요소들이 자녀출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가치관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유형화하고 이와 자녀출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의 주요 구성요소인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을 통합하여 유형화하여 자녀출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갖는 가족가치관은 복합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가치관의 요소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떤 가치관 요소가 결합된 가족가치관 유형이 자녀출산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나를 분석할 수 있어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 인식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이며 온라인(On-line) 설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 방법으로는 응답자가 직접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의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기재하거나 누락된 응답은 없었다. 사전조사는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조사 결과 설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554명을 대상으로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604부의 설문이 완료되었으며 응답 범위 외의 값을 갖는 3명의 응답을 제외한 60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구성

측정도구는 배경 변인, 가족가치관 변인, 자녀출산 인식 변인으로 구성하였다(<표 2> 참고).

배경 변인은 공통 배경 변인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인간관계 또는 심리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성격이 다른 것을 구분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변인을 측정할 적도의 성격이 달라 구분하여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는 다수의 선행연구(김경신, 1998a; 김일명, 1988; 이지혜, 2010; 진미정·정혜은, 2010; 홍표자, 2009 등)를 참고로

〈표 2〉 측정도구 구성

변인		구성요소	문항수	척도
배경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연령, 장남/장녀여부, 전공계열, 종교, 부모의 이혼 및 별거 경험 여부, 경제생활수준1)	7	명목, 5점 Likert
	사회심리적 변인	부-자녀 친밀감2), 모-자녀 친밀감2), 성역할 태도	8	5점 Likert
가족가치관 변인		가족가치관(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	27	5점 Likert
자녀출산 인식 변인		자녀출산 계획(희망자녀수, 계획자녀수), 저출산 심각성 인지도, 저출산 해결주체에 관한 인식,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개인, 가족, 사회)에 관한 인식	7	명목, 5점 Likert

1) 5점 Likert 척도로 5점으로 갈수록 경제생활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2) 5점 Likert 척도로 5점으로 갈수록 부-자녀 친밀감, 모-자녀 친밀감에 높다는 의미임.

가족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인 성별, 연령, 장남/장녀 여부, 전공계열, 종교, 부모의 이혼 및 별거 경험 여부, 경제생활수준을 선정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김건영, 2009; 김태현, 2007; 박현주, 2006; 이정우 외 2인, 2012; Chia 외 6인, 1994 등)에서는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성역할 태도 변인이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배경 변인 중 사회심리적 변인이라는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부-자녀 친밀감, 모-자녀 친밀감, 성역할 태도를 포함시켰다. 부-자녀, 모-자녀 친밀감에 관한 문항은 각각 한 문항씩이며 성역할 태도는 박은아(2003)의 연구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6문항(Cronbach' $\alpha=0.840$)으로 구성하였고 5점으로 갈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가치관 변인은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으로 구성하였는데 결혼관은 김혜정(2010), 남주희(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연구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6문항(Cronbach' $\alpha=0.779$)이 선정하였다. 결혼관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뜻하며 자녀관은 Hoffman(1973)의 VOC(Value of Child) 연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홍표자(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는데 자녀관 하위요소로는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 각 3문항씩 총 9문항(Cronbach' $\alpha=0.749$)이다. 결혼관과 마찬가지로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큰 의미를 갖거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주의관은 김일명(1988), 신수진(1998), 옥선화(1989), 하은아(2002)의 연구를 참고로 하위요소는 효의식, 가족우선성, 가계계승 및 발전으로 각 4문항씩 총 12문항(Cronbach' $\alpha=0.717$)을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가족중심적인 의식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출산의 행위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출산의 의도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박현주, 2006)의 몇몇의 선행연구(권은·김의철, 2004; 김혜정, 2010; 홍표자, 2009) 결과에서는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상황을 고려한 자녀수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희망자녀수, 계획자녀수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몇몇의 선행연구(김혜정, 2010; 도미향, 2011) 연구에서는 결혼의 중요성 인식정도, 자녀에 대한 생각 등의 변인에 따라 자녀출산 의사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출산의 인식에 관한 문항 중 저출산에 관한 심각성 인지도, 저출산 원인과 정책에 관한 인식 문항 중 해결주체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켜 이를 참고로 본 연구에서도 저출산 심각성 인지도(5점 Likert 척도로 5점으로 갈수록 심각하게 인식), 저출산 해결주체에 관한 인식,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좀 더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참고로 가족가치관 구성요소 또는 유형과 자녀출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한정된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변인이 선정되었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으로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 실시되었다. 군집분석이란 다수의 대상이 소유하는 특성을 토대로 유사성을 지닌 대상끼리 그룹을 짓게 하는 통계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군집화 중 K-평균법(K-means)이 사용되었다. 계층적 군집화의 경우 예외값(outlier)이 제거되지 않은 채 어떠한 한 군집에 반드시 속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비계층적 군집화가 더 널리 사용되며(이학식·임지훈, 2005) 비

계층적 군집화는 사전에 정해진 군집의 숫자에 따라 대상들이 군집에 할당되며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 달리하여 여러 번 실행 후 적합한 군집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 군집에 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 달리하여 가장 적합한 군집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비계층적 군집화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K-평균법(K-means)인데 K는 군집의 수를 의미하며 사전에 정해진 K개의 군집씨앗을 중심으로 한 군집씨앗이 선택되고 그 근처 비슷한 대상이 모여 군집화가 되며 이후 또 같은 방식으로 다음의 군집화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표본이 이미 한 군집에 속해있더라도 그 특성이 새로운 군집에 더 가까우면 그 군집으로 할당되는데 이는 한 군집에 속하면 다른 군집에 이동될 수 없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배경 변인은 카이검증(X^2),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이 사용되었다. 또한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카이검증(X^2),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고). 먼저, 성별은 남성이 49.6%, 여성이 50.4%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은 평균 21.63세로 19세 미만이 20.8%, 20-21세가 30.9%, 22-23세가 26.8%, 24세 이상이 21.5%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집안에서의 장남인지, 장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장남 또는 장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60.2%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 계열은 자연/공학/치의학계열이 39.3%, 인문/사회 계열 전공이 31.6%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57.9%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4.6%, 천주교 9.2%, 불교 7.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 및 별거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약 16.3%의 학생이 경험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심리적 변인 중 아버지와의 관계는 5점 만점에 2.87점, 어머니와의 관계는 4.28점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역할 태도는 5점 만점에 3.97점으로 비교적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가족가치관은 평균 3.00점으로 가족에 대해서 중간정도 수준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자녀관이 3.24점, 가족주의관이 2.99점, 결혼관이 2.79점으로 나타나 자녀나 가족주의 가치에 비해 결혼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녀관과 가족주의관은 평균과 중앙값이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관의 경우 평균이 2.79점, 표준편차가 0.66점, 중앙값이 2.83점인 것을 볼 때 결혼관의 경우 개인차가 다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자의 가족가치관을 조사한 다른 연구(임선영·박주희, 2014)에 비해 가족가치관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순위 상으로 자녀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결혼관이 다른 가치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자녀관, 가족관 순으로 낮았는데(김은선, 2014), 즉 청소년의 경우 결혼관이나 자녀관은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나 가족관이 현저하게 낮아 연령에 따라 가족가

〈표 3〉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

n=601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인구 사회학적 변인	성별	남성	298(49.6)	-
		여성	303(50.4)	
	연령(만나이)	19세 미만	125(20.8)	21.63(2.32)
		20-21세	186(30.9)	
		22-23세	161(26.8)	
		24세 이상	129(21.5)	
	장남/장녀여부	장남/장녀	362(60.2)	-
		장남/장녀 아님	239(39.8)	
전공계열	인문/사회	190(31.6)	-	
	자연/공학/치의학	236(39.3)		
	기타	175(29.1)		
종교	기독교	148(24.6)	-	
	불교	44(7.3)		
	천주교	55(9.2)		
	종교없음	348(57.9)		
	기타	6(1.0)		
부모의 이혼 및 별거 경험 여부	있음	98(16.3)	-	
	없음	503(83.7)		
경제생활수준			-	2.87(0.89)
사회심리적 변인	아버지와의 관계		-	3.78(1.02)
	어머니와의 관계		-	4.28(0.72)
	성역할 태도		-	3.97(0.72)

〈표 4〉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n=601

가족가치관 ¹⁾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결혼관	601	2.79	0.66	2.83
자녀관	601	3.24	0.58	3.20
가족주의관	601	2.99	0.43	3.00
전체	601	3.00	0.44	-

1) 5점 Likert 척도로 5점으로 갈수록 결혼, 자녀, 가족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을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의 세 가지 차원으로 K-Mean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세 개의 군집으로 도출

할 수 있었다.

유형 1은 가족가치관 하위요소인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이 평균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 평균에 비해 0.7점이 더 높았으며 자녀관은 0.5점, 가족주의관은 0.24점이 높

<표 5>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 및 유형별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n=601/평균

유형	빈도(백분율)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	평균비교 (Duncan)
1 (가족중시형)	187(31.1)	3.49 a	3.74 a	3.23 a	+ + +
2 (개인중시형)	132(22.0)	2.08 b	2.49 b	2.58 b	- - -
3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282(46.9)	2.66 c	3.25 c	3.01 c	- + +
M		2.79	3.24	2.99	
F		162.533***	119.558***	32.662***	

* p<.05, ** p<.01, *** p<.001

아 부호로는 “+, +, +”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집단은 결혼, 자녀, 가족주의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어 “가족중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전체 대상자의 31.1%를 차지하였다.

유형 2는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 모두가 각각의 평균이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녀관이 0.75점, 결혼관이 0.71점, 가족주의관이 0.4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 -, -”로 나타낼 수 있는데 결혼 및 자녀, 가족주의 가치가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개인에 대한 가치가 더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은 전체의 22.0% 정도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개인중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 3은 자녀관, 가족주의관은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결혼관만이 평균에 비해 0.1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호로는 “-, +,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개인의 선택인 결혼은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자녀, 가족주의 가치는 평균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체의 46.9%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세 개의 가족가치관 유형이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 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 및 Duncan을 이용한 사후분석을 실

시하였다(<표 5>).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역시 모든 집단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의 경우 “가족중시형”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개인중시형”과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집단에서는 평균보다 낮았다. 자녀관은 “가족중시형”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집단에서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개인중시형”에서는 평균보다도 더 낮은 2.4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관은 “가족중시형” 집단과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중시형”의 경우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리하면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에 있어서 도출된 군집의 세 가지 유형이 서로 차이를 보여 모두 상이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3.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별 특성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배경변인은 <표 6>과 같다.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사회심리적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별, 연령, 종교, 경제생활수준,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성역할 태도이며 장남/장녀여부,

(표 6)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별 특성

n=601/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변인	구분	가족중시형	개인중시형	자녀·가족 중시 복합형	합계	X^2/F (Duncan)	
인구 사회학 적 변인	성별	남성	134(45.0)	29(9.7)	135(45.3)	298(100.0)	77.045***
		여성	53(17.5)	103(34.0)	147(48.5)	303(100.0)	
	연령	19세 미만	40(32.0)	28(22.4)	57(45.6)	125(100.0)	15.554*
		20-21세	40(21.5)	50(26.9)	96(51.6)	186(100.0)	
		22-23세	57(35.4)	35(21.7)	69(42.9)	161(100.0)	
		24세 이상	50(38.8)	19(14.7)	60(46.5)	129(100.0)	
	장남/장녀 여부	장남/장녀	113(31.0)	83(20.5)	166(48.5)	362(100.0)	.609
		장남/장녀 아님	74(31.2)	49(22.9)	116(45.9)	239(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	52(27.4)	52(27.4)	86(45.3)	190(100.0)	9.055
		자연/공학/치·의학	83(35.2)	38(16.1)	115(48.7)	236(100.0)	
기타		52(29.7)	42(24.0)	81(46.3)	175(100.0)		
종교	기독교	56(37.8)	18(12.2)	74(50.0)	148(100.0)	17.711*	
	불교	14(31.8)	7(15.9)	23(52.3)	44(100.0)		
	천주교	20(36.4)	10(18.2)	25(45.5)	55(100.0)		
	종교없음	95(27.3)	95(27.3)	158(45.4)	348(100.0)		
	기타	2(33.3)	2(33.3)	2(33.3)	6(100.0)		
부모의 이혼 및 별거 경험 여부	있음	25(25.5)	21(21.4)	52(53.1)	98(100.0)	2.138	
	없음	162(32.2)	111(22.1)	230(45.7)	503(100.0)		
경제생활수준		3.03(0.86) a	2.83(0.89) ab	2.78(0.90) b	2.87(0.89)	4.363*	
사회 심리적 변인	아버지와의 관계		4.02(0.96) a	3.61(0.98) b	3.70(1.04) b	3.78(1.02)	8.467***
		어머니와의 관계	4.46(0.60) a	4.14(0.77) b	4.23(0.74) b	4.28(0.72)	9.261***
	성역할 태도	3.65(0.73) a	4.52(0.48) b	3.93(0.67) c	3.97(0.72)	70.456***	

* p<.05, ** p<.01, *** p<.001

전공계열, 부모의 이혼 및 별거 경험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각각 45.3%, 48.5%로 가장 많았으나 “가족중시형”의 경우 남자 대학생은 45.0%인 반면 여자 대학생은 17.5%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중시형”의 경우 남자 대학생은 9.7%였지만 여자 대학생은 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중시형”은 남학생 비율이, “개인중시형” 비율은 여학

생 비율이 높으나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의 경우는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가치관 유형 순위별로는 차이를 보여, 19세 미만, 22-23세, 24세 이상의 경우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다음으로 “가족중시형”이 각각 32.0%, 35.4%, 38.8%로 많은 것으로 나타

난 반면, 20-21세의 경우 “개인중시형”이 26.8%로 “가족중시형” 21.5%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 연령대 학생의 경우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은 51.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에 따라서도 모든 종교에서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 자녀, 가족주의 의식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중시형”은 기독교인 경우가 37.8%, 천주교가 36.4%로 종교가 없는 집단인 27.3%에 비해 약 10%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고정자·강숙경, 1996; 김일명, 1988; 이지혜, 2010)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가족가치관이 더 전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개인중시형”이 가장 많은 집단은 종교가 없는 집단(27.3%)이었고 이는 이 집단의 “가족중시형” 비율과 동등한 수치이다.

경제생활수준에 따라서는 “가족중시형” 집단의 경제수준이 5점 만점에 3.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집단의 경제수준이 2.78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제생활수준에 따른 가족가치관은 선행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이 높은 집단이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이지혜, 2010; 홍표자, 2009) 이러한 결과 차이의 원인도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가족중시형”에 속하는 집단의 경우 5점 만점에 4.02점으로 “가족중시형” 집단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중시형”의 경우 3.6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이 집단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족중시형”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가 5점 만점에 4.46점으로 높았다. 그러나 “개인중시형”의 경우 4.14점으로 나타났는데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낮은 점수라고 보

기 어려우나 본 조사대상자의 전체적인 평균이 4.28점임을 고려해볼 때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김진영, 2009; 김태현, 2007; 김혜환, 2008)에서 밝혀졌듯이 부모와의 관계가 가족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데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결혼 및 자녀, 가족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점을 만점으로 한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는 “개인중시형” 집단이 4.52점으로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으며 반면 결혼, 자녀, 가족주의 의식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중시형”의 경우 3.65점으로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자녀·가족중시 복합형”도 평균인 3.97점보다는 낮은 것(3.93점)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중시형” 가족가치관 유형 집단은 주로 남성이고, 연령이 24세 이상이며, 종교가 기독교이며, 세 집단 중 경제생활수준이 가장 높고,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좋고, 성역할 태도가 가장 전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중시형” 집단은 주로 여성이며, 연령이 20-21세이고, 종교가 없고, 경제생활수준이 세 집단 중 중간에 속하며, 세 집단 중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고, 성역할 태도가 가장 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가족가치관 유형 집단은 주로 여성이고, 연령이 20-21세이며, 종교가 불교이며, 경제생활수준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집단이며,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와 성역할 태도가 세 집단 중 중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 인식

1)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 계획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 계획을 희망자녀수, 계획자녀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7> 참고). 희망자녀수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후 희망하는 자녀의 수이며, 계획자녀수란, 미래 결혼 후 실제 출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남녀 대학생의 희망자녀수는 평균 2.42명이라고 응답하였는데, “가족중시형”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2.4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중시형”은 2.01명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계획자녀수는 평균 1.79명으로, 희망자녀수에 비해 0.63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 유형별로는 희망자녀수의 경우와 순위가 동일하여 각각 2.02명, 1.96명, 1.31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희망자녀수와 계획자녀수 간의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집단은 “개인중시형(0.7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중시형(0.66명)”, “자녀·가족중시 복합형(0.49명)”이었다. 가족가치관을 유형화 한 연구는 거의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희망자녀수와 계획자녀수를 조사한 다수의 선행연구(권영인, 2013; 권용은·김의철, 2004; 김혜정, 2010; 이삼식, 2006; 홍표자, 2009;)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즉, 희망자녀수는 평균 2명 이상이나 실제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는 그보다 더 낮은 특성을 보여 이 둘 간의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표 6>에서 성별에 따라 가족가치관 유형의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즉 “가족중시형”의 경우 남학생이 월등히 많았으며 반대로 “개인중시형”은 여학생이 약 3배 가까이 많았고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은 남녀 대학생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해서 추가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남학생의 희망자녀수는 2.39명으로 “가족중시형” 집단의 희망자녀수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은 그보다 약간 적었으나 사후분석 결과 둘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반면, 계획자녀수는 평균 1.83명으로 희망자녀수보다 적었으며 역시 “가족중시형” 집단의 계획자녀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개인중시형”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둘의 집단은 Duncan 사후분석 결과 “가족중시형” 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학생의 희망자녀수는 2.46명으로 남학생보다 많았고 “가족중시형”,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개인중시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모두 다른 특성을 보였다. 계획자녀수는 오히려 남학생보다 적은 1.75명으로 나타났으며

<표 7>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 계획

n=601				
	유형	평균	표준편차	F(Duncan)
희망자녀수	가족중시형	2.68 a	0.86	21.189***
	개인중시형	2.01 b	1.12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2.45 c	0.83	
	평균	2.42	0.94	-
계획자녀수	가족중시형	2.02 a	0.70	39.890***
	개인중시형	1.31 b	0.88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1.86 c	0.65	
	평균	1.79	0.77	-

* p<.05, ** p<.01, *** p<.001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라서는 희망자녀수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하지만 분산분석 사후분석 결과 “가족중시형”,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개인중시형” 집단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정리하면 <표 7>의 경우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 계획은 각 집단별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성별로 구분한 <표 8>에서 남학생은 희망자녀수에 있어 “가족중시형”과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계획자녀수에 있어서는 “개인중시형”과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동일한 집단 양상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희망자녀수에 있어 각 집단이 다른 특성을, 계획자녀수에 있어서는 “가족중시형”과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동일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희망자녀수는 많은 반면, 계획자녀수는 더 적게 나타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더 현실적으로 실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 심각성 인지도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 심각성 인지도는 <표 9>와 같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녀 대학생들은 평균 3.85점으로 저출산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가족가치관 유형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가족중시형”에 속한 집단이 평균 4.03점, “개인중시형”과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평균 3.77점으로 나타나 “가족중시형” 집단이 그 외 집단에 비해 0.26점 높아 저출산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중시형”의 경우 결혼 및 자녀, 가족주의를 다른 집단에 비해

<표 8>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 계획

n=601/평균

자녀출산 계획	남학생					여학생				
	평균	가족 중시형	개인 중시형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F (Duncan)	평균	가족 중시형	개인 중시형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F (Duncan)
희망자녀수	2.39 ¹⁾	2.58 a	1.89 b	2.32 a	8.703***	2.46	2.94 a	2.04 b	2.57 c	17.479***
계획자녀수	1.83	1.99 a	1.31 b	1.77 b	12.211***	1.75	2.09 a	1.31 b	1.93 a	28.056***

* p<.05, ** p<.01, *** p<.001

1) 각 유형별 평균의 합계가 <표 7>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통계 프로그램에서의 소수점 처리과정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표 9>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 심각성 인지도

n=601

유형	평균 ¹⁾	표준편차	F(Duncan)
가족중시형	4.03 a	0.64	7.851***
개인중시형	3.77 b	0.82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3.77 b	0.75	
평균	3.85	0.74	-

* p<.05, ** p<.01, *** p<.001

1)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으로 갈수록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균이 3.85점임을 고려해보면 이들 집단이 인지하는 저출산 심각도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가족가치관 유형의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 저출산 인식 부분인 저출산 심각성 인지도, 저출산 해결주체,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을 남녀 대학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추가분석 하였는데 저출산 인식 부분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 부분만 남녀 학생을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표 10> 참고) <표 10>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 심각성 인지도는 평균 3.87점으로 <표 9>의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가족중시형” 집단이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어서 전

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저출산 심각성 인지도를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 차이가 <표 9>와 동일하게 나온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저출산 심각성에 대해 집단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가족중시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더 높게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의 유형별 저출산 해결주체

조사대상자의 가족가치관 유형별 저출산 해결주체 질문에 관한 결과는 <표 11>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분석을 다시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10>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 심각성 인지도

유형	남학생		여학생	
	평균 ¹⁾	F(Duncan)	평균	F(Duncan)
가족중시형	4.01 a	4.25*	4.08 a	3.93*
개인중시형	3.86 a		3.75 b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3.74 a		3.80 b	
평균	3.87	-	3.83 ²⁾	-

* p<.05, ** p<.01, *** p<.001

1)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으로 갈수록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

2) 각 유형별 평균의 여학생 전체평균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통계 프로그램에서의 소수점 처리과정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표 11>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의 유형별 저출산 해결주체

유형	본인					X ²
	본인	기업	정부	사회단체	기타	
가족중시형	59(31.6)	9(4.8)	106(56.7)	0(0.0)	13(7.0)	11.409
개인중시형	22(16.7)	7(5.3)	91(68.9)	1(0.8)	11(8.3)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67(23.8)	12(4.3)	179(63.5)	3(1.1)	21(7.4)	

* p<.05, ** p<.01, *** p<.001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대학생을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경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형에 관계없이 저출산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6.7%(가족중시형), 68.9%(개인중시형), 63.5%(자녀·가족중시 복합형)였다. 그 중 “개인중시형” 집단의 경우 68.9%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저출산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반면, “가족중시형”의 경우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1.6%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이 집단의 결혼, 자녀, 가족주의 가치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저출산 문제도 본인이 주체가 되어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 주체가 자신이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양옥경, 2002). 한편, 선행연구(김혜정, 2010)에서도 저출산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의지를 꼽았다. 반면, 국가나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권영인, 2013)를 볼 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시행 시 정책 수혜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실제 정책 수혜대상자들이 알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축하금이 64.6%로 다른 정책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신효영·방은령, 2009) 보다 다양한 정책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

4)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 영향에 대한 인식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 영향에 대한 인식을 생태학적 관점을 고려하여 개인, 가족, 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저출산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족가치관 유형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전체로 분석한 결과인 <표 12>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집단이 저출산으로 인해 개인에게는 “양육부담이 경감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중시형”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중시형”이 41.2%,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이 39.4%로 출산으로 인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은 시간, 경제력, 돌봄 등 어느 한 자원만 가지고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노후의

<표 12>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n=601/빈도(백분율)

유형	양육부담경감	노후부양기대	사회활동가능	영향없음	기타	X ²
가족중시형	77(41.2)	56(19.9)	29(15.5)	18(9.6)	7(3.7)	
개인중시형	60(45.5)	18(13.6)	34(25.8)	10(7.6)	10(7.6)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111(39.4)	65(23.0)	56(19.9)	41(14.5)	9(3.2)	22.637**

* p<.05, ** p<.01, *** p<.001

정신적·경제적 안정에 대한 응답에 비해 약 두 배 이상의 응답이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개인중시형”은 저출산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8%로 2순위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개인적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혜정(2010)의 연구에서는 미혼남녀가 출산 및 자녀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중 남녀 모두 자녀양육비 및 양육경감지원,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등을 꼽았으며 신효영·방은령(2009)의 연구에서는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남성의 경우 가치관 및 건강문제, 여성의 경우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 특히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저출산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13> 참고).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다시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학생을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경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유형에 있어 저출산으로 인해 가족 특히 “형제·자매의 유대가 약화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개인중시형”이 53.8%로 가장 높았다. “가족중시형”의 경우 “친척유대가

약화된다”가 18.2%,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가 17.1%로 나타났으며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가 19.1%, “친척유대가 약화된다”가 16.3%로 나타났다. “개인중시형”의 경우도 “자녀중시형”과는 순위가 동일했지만 비율에서 차이를 보여 자녀가 적음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났다. 세 유형에서 순위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저출산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족 및 친족 간의 “관계”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었으며 그 문제 외에는 오히려 자녀가 적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 중 경제적 부담이 1위로 꼽힌 결과와 일치하나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으로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환경개선 즉 보육서비스나 교육정책, 사회분위기를 우선시하였으며(신효영·방은령, 2009) 이는 보육교사나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확대, 수준 높은 공교육 정책,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 및 직장 내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이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별 저출산이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14>

<표 13>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n=601/빈도(백분율)

유형	경제 여유	가계계층 문제	친척유대 약화	형제자매 유대약화	소형주거 가능	영향 없음	기타	X^2
가족중시형	32 (17.1)	14 (7.5)	34 (18.2)	98 (52.4)	3 (1.6)	6 (3.2)	0 (0.0)	15.191
개인중시형	36 (27.3)	1 (0.8)	17 (12.9)	71 (53.8)	3 (2.3)	4 (3.0)	0 (0.0)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54 (19.1)	16 (5.7)	46 (16.3)	145 (51.4)	8 (2.8)	12 (4.3)	1 (0.4)	

* p<.05, ** p<.01, *** p<.001

<표 14>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저출산이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n=601/빈도(백분율)

유형	노동력 부족	경제 비활성화	성장력 약화	세대 간차이 발생	산업 불균형	사회 자원 감소	영향 없음	기타	X^2
가족중시형	40 (21.4)	43 (23.0)	72 (38.5)	6 (3.2)	9 (4.8)	13 (7.0)	1 (0.5)	3 (1.6)	8.951
개인중시형	35 (26.5)	31 (23.5)	45 (34.1)	4 (3.0)	5 (3.8)	6 (4.5)	3 (2.3)	3 (2.3)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77 (27.3)	59 (20.9)	93 (33.0)	11 (3.9)	20 (7.1)	15 (5.3)	4 (1.4)	3 (1.1)	

* p<.05, ** p<.01, *** p<.001

참고).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다시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학생을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경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4>를 보면 “성장력이 약화된다”는 응답이 모두 30% 이상(“가족중시형” 38.5%, “개인중시형” 34.1%,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3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형별로 순위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진다”와 “경제가 비활성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유형별로 1-3순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중시형”은 결혼 및 자녀, 가족주의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영인(2013)의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이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미래 예상 자녀수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가치관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국가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더 긍정적인 가족가치관을 갖게 되며 이는 미래 예상 자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00점으로 결혼관이 2.79점, 자녀관이 3.24점, 가족주의관이 2.9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족가치관을 유형화하기 위해 K-means 방법을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 결혼, 자녀, 가족주의 의식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중시형”, 결혼, 자녀, 가족주의 의식을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개인중시형”, 결혼에 대한 가치는 다소 미온적이지만 자녀 및 가족주의 의식이 평균 수준인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으로 총 세 가지 유형화 되었다.

둘째,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한 결과 성별, 연령, 종교, 경제생활수준,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성역할 태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중시형” 가족가치관 유형 집단은 남성이고, 연령이 24세 이상이며, 종교가 기독교이며, 세 집단 중 경제생활 수준이 가장 높고,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좋고, 성역할 태도가 가장 전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중시형” 집단은 여성이며, 연령이 20-21세

이고, 종교가 없고, 경제생활 수준이 세 집단 중 중간에 속하며, 세 집단 중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원만하지 않으며, 성역할 태도가 가장 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가족가치관 유형 집단은 주로 여성이고, 연령이 20-21세 이며, 종교가 불교이며, 경제생활 수준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집단이며,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와 성역할 태도가 세 집단 중 중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녀출산 인식에 대해 가족가치관 유형 별로 살펴본 결과 희망자녀수와 계획자녀수 모두 “가족중시형”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중시형”이 가장 적었다. 여학생의 경우 희망자녀수는 남학생에 비해 많았으나 계획자녀수는 남학생이 비해 적었다. 저출산 심각성에 대해서는 “가족중시형”이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두 집단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집단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가족중시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에 관한 인식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에서 “가족중시형” 집단은 “개인중시형” 집단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을 보였다. 저출산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모든 유형에서 “양육부담이 경감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제자매의 관계가 약화된다”, “친척유대가 약화된다”가 1-3순위 내로 나와 “관계”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었다. 반면 3순위 내에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는 응답도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이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형별로 순위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성장력이 약화된다”,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경제가 비활성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가치관 유형중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이 모두 높은 집단인 “가족중시형” 집단은 희망자녀수나 계획자녀수가 모두 높고 저출산 심각성도 가장 크게 느끼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가치관 유형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녀출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권영인, 2013)에서도 가족가치관이 미래 예상 자녀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자체로 출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가족가치관을 고르게 정립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대학 교양 과목 또는 대학 내 부설 연구소,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둘째, 희망자녀수나 계획자녀수가 가장 낮고 저출산 심각성도 가장 낮은 “개인중시형” 가족가치관 집단은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 가치관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이들의 특성은 주로 여성이며, 연령이 20-21세이고, 종교가 없고, 경제생활 수준이 세 집단 중 중간에 속하며, 세 집단 중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고, 성역할 태도가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며, 종교가 없는 여자 대학생들이 대체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결혼이나 자녀출산도 기피하는 성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 의식이 고르게 포함된 가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내용선정, 접근 방법, 교수-학습방법이나 매체를 좀 더 구체화 하고 저학년에서 실시하여 가치관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가족가치관 유

형 집단은 여성이고, 저학년이고 경제생활 수준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집단인데 이들은 결혼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 및 가족주의의 의식은 평균이상임을 볼 때 결혼에 대한 올바르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면 가족가치관에 있어 보다 균형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도미향(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할 자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혼인식과 계획자녀수, 출산인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위한 교육에는 결혼이 갖는 의미,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성평등성, 협동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결혼과 가족 또는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러한 강좌를 확대하고 특히 대학교 1-2학년 시기에 필수 교양강좌로 포함시킨다면 긍정적인 가족가치관 함양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 또는 여학생들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통한 연계 교육도 의미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넷째, 전반적으로 여자 대학생 집단이 가족가치관 수준도 낮고 자녀출산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출산 후 갖게 되는 부담을 여성들이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여자 대학생들에게 결혼 및 자녀, 가족주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가지며, 가족친화적 사고를 유도한다면 저출산 문제해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사회 전체의 의식이나 제도가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후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2008년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탄력 근무제, 근로자 지원 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지역사회나 대학교 내에서의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할 수 있는데 대학생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대학교임을 감안할 때 학교를 통한 캠페인 또는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유형의 가족가치관 집단에서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정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가치관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남녀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을 앞둔 대학생들의 가족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자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는 대학생을 위한 가족가치관 교육을 포함 시켜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강조를 해야 되는 내용, 방법 등을 차별화 시켜야만 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대학생 또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지원은 없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분야에 한해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혼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정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이에 앞서 결혼 및 자녀, 가족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을 다시 한 번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현재 각 대학,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업, 종교집단, 법인 및 단체 등에 의해 가족가치관과 비슷한 의미로써 볼 수 있는 결혼 준비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대상이 이미 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올바른 가족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교육적 목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는 차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모든 가족가치관 유형에서 저출산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양육부담이 경감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양상을 더 많이 보였으며 따라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고출산 국가인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양육지원 예산은 2.8%가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족정책 관련 예산이 0.57%이며 OECD 평균 2.18%의 4분의 1 수준으로(매일경제, 2015) 주요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한 고출산 국가의 경우 육아 인프라 역시 공보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수당을 통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전부터 만 16세까지 각종 수당을 직·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스웨덴의 경우 출산휴가가 480일이며 이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의 80%를 지급받는다(대한민국정부, 2015; 머니투데이, 2016). 현재 우리나라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서 90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이는 고출산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6%로 전체 아동의 12%만을 수용하고 있어(대한민국정부, 2015) 국·공립뿐만 아

니라 공공형 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독립적이 아닌 관련된 직·간접적인 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개인과 가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가치관 구성요소인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관은 가족가치관을 유형화 할 수 있는 기본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가족가치관 구성요소 이외에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가치관 요소도 가족가치관 유형화에 적용 될 수 있는지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이나 자녀에 있어 더 중요한 가치를 보여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가족가치관 유형을 보였다. 따라서 남녀를 각각 분리하여 추가 통계분석을 실시한 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추후 좀 더 정교한 연구모형으로 시도되어 성별에 따른 가족가치관 차이와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39-653.
- 2) 고정자·강숙경(1996). 가정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85-96.
- 3) 권영인(2013). 출산장려정책 및 경제 상황 인식과 가족 가치관이 미혼 남녀의 미래 예상

- 출산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75-92.
- 4) 권용은·김의철(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 5) 김건영(2009).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경신(1998a). 가족가치관 세대별 비교연구 :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7) 김경신(1998b).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6.
 - 8) 김보경·김한곤(2005).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 : 다학제적 접근, 6(2), 45-73.
 - 9) 김승권(2001).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방향. 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세미나 자료집.
 - 10) 김시엽(1999). 결혼과 가족. 서울 : 학지사.
 - 11) 김일명(1988).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은선(2014). 청소년의 가족가치관과 기대자녀수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김자옥(2009). 기혼남성의 가족가치관과 자녀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김진희(2010). 남녀대학생의 가족개념, 가족주의가치관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499-510.
 - 16) 김진희(2014).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자녀관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15.
 - 17) 김태현(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25, 16-24.
 - 18) 김태현(2007). 저출산 대응 미래세대 가치관 정립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 김태현·임선영(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85-109.
 - 20) 김혜정(2010). 미혼남녀별 결혼 및 자녀출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미혼남녀 대상.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김혜영(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17(1), 115-146.
 - 22) 김혜환(2008).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 중등학생과 미혼남녀(20-29세) 실태조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김홍규·주연희(2003).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교육연구, 9, 177-194.
 - 24) 남주희(2007).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결혼동거성역할자녀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뉴시스(2015). 2015 국감 : 저출산 예산 10년간 81조원, 출산율은 제자리. 2015.9.14. 사회면.
 - 26) 대한민국정부(2015).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27) 도미향(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28) 류진아(201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가족가치관 :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머니투데이(2015). 저출산 정책도 선진국 스웨덴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2016.02.03.
 - 30) 매일경제(2015). ‘저출산·고령화 5관왕 신기록’ 오명 쓴 대한민국을 어찌하리오. 2015.12.10.
 - 31) 박수선(2010).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37-55.

- 32) 박수현(2003). 대학생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박은아(2003).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4) 박현주(2006).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5)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 서울 : 교문사.
- 36) 백주희(2009). 가족가치관과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 국제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239-251.
- 37) 손승영(2004). 출산의욕 고취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사회적 대처 방안. 보건복지부.
- 38) 신경수(2013). 대학생들의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권 종합대학교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9)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0) 신효영·방은령(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한가정학회지, 47-10, 123-136.
- 41) 새누리당(2016). 보도자료 :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주요내용. 2016. 1.29.
- 42)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43) 양옥경(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인식 연구 :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 229-256.
- 44) 연합뉴스(2016). 당정, 저출산대책 총력체제, '총리가 컨트롤타워 돼야'. 2016.1.29.
- 45)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6) 옥선화·성미애·신기영(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17.
- 47) 옥선화·진미정(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4), 67-76.
- 48) 은기수(2004). 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
- 49) 은기수·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50) 이동원(1987).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회 논총, 52, 229-256.
- 51)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99-121.
- 52)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53)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4) 이세영(2014).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5) 이정우·이연숙·김하늬(2012).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과 자녀출산 계획에 관한 연구. 학술원 논문집, 51(1), 1-37.
- 56) 이지해(2010). 저출산 사회와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7) 이학식·임지훈(2005). SPSS 12.0 매뉴얼. 경기 : 법문사.
- 58) 이훈희(2011). 형제자매 유무 및 관계가 결혼·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9) 임선영 · 박주희(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구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60) 임정빈 · 지영숙 · 문숙재 · 이기영 · 이연숙 (1994). *가정관리학*. 서울 : 신정.
- 61) 조복희 · 김양은(2010). 현재 자녀수를 결정하는 변인 분석 : 자녀양육 관련 변인, 자녀가치 관련 속담, 가족정책 표어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4(2), 169-191.
- 62) 조선일보(2015). *발언대 : 저출산 대책, 의료 지원 확대해야*. 2015.15.15. 사설면.
- 63) 조아라(2005). *저출산 대책 마련 연구 :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4) 진미정 · 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65) 최현경 · 이성희(2014). 대학생의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4), 588-596.
- 66) 통계청(2015). 2015년 고령자통계. 통계청.
- 67) 하은아(2002). 가족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가족개념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양성평등 가치관 조사.
- 69) 황지영(2007).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의식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0) 홍성애 · 윤혜려(2012). 대학생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가치관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3), 197-208.
- 71) 홍승직(1971).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한국사회학연구총서.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 72) 홍표자(2009). 청소년 가치관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3) Arland, T. & Linda, Y.(2011). Four decades of trends in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 The 1960s through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1009-1037.
- 74) Beets, G.(199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ing of first birth :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 75) Chia, R. C., Wuensch, K. L., Childers, J., Chuang, C., Cheng, B., Cesar-Romero, J. & Nava, S.(1994). A comparison of family values among chinese, mexic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9(2), 249-258.
- 76)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77) Fernández, R. & Fogli, A.(2005). *Fertility : The role of culture and family experience*. NYC Working Paper, Ec-05-14, 1-12.
- 78) Hoffman, L. W. & Hoffman, M. L.(1973).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ames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pp 19-76). New York : Basic Books.
- 79) Jacqueline, S.(2006). *Family and gender roles : How attitudes are changing*. GeNet Working Paper, 21, 1-17.
- 80) Jutta, M. J.(2010). Children and the timing of women's paid work after childbirth : A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4), 1008-1021.
- 81) Jutta, M. J.(2011). Paid leave and the timing of women's employment before and after bir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4), 1008-1021.
- 82) Nauck, B.(2000). *The changing value of Children : A special action theory of fertility*

- behavio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cross-cultural comparison. “Low fertility, families and public policies” organised by the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in Sevilla, 1-12.
- 83) Lewis, H.(1991). A question of values. New York : Harper & Collins.
- 84) Trommsdorff, G., Kim, U. & Nauck, B.(2005). Factors influencing value of childre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times of social change : Analyses from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54(3), 313-316.
- 85) William, E. E.(2011). Career interruptions following childbir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5(2), 255-277.
- 86) UNFPA(2014).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4. New York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투 고 일 : 2015년 12월 30일
- 심 사 일 : 2016년 1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23일